

영재교사들이 지각하는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 중요도, 실행수준 분석: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한 기 순

인천대학교

이 정 용

인천대학교

이 연구는 개념도 연구법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근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관찰-추천 영재 판별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영재들을 지도하고 있는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중요도 그리고 실행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12명의 영재교사들이 영재판별에서 바람직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 작성한 진술문을 산출, 종합,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다차원 척도와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기서 산출된 바람직한 관찰-추천 시스템 관련 문항을 가지고 112명의 영재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수준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인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토대로 진술문을 종합한 결과 36개의 진술문이 도출 되었으며 이들 36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은 .249이었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의 좌표 값을 기초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인식은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각 범주명은 '전문성 확보', '행정적 지원 확보', '공정성 확보', '관찰-추천제의 원칙'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 범주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든 범주에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 탐색의 중요도와 실행수준의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앞으로 본격화될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현재는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재교사들을 통해 알아보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개념도 연구법, 영재판별, 관찰-추천, 영재담당교사

I. 연구의 필요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영재교육에서 단연 화두는 '관찰-추천 시스템'이다. 영재선발은 영재교육의 시작이자 영재교육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영재선발 시스템의 변화는 영재학생, 교사, 학부모 및 관련 행정가들의 가장 주된 관심일 수 밖에 없다(Scott & Jillian, 2010; Siegle & Powel, 2004). 2009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이 아닌 교사에 의한 관찰·추천제를 도입하고 전국에서 소외지역부터 5,700명을 관찰·추천으로 선발하겠다는 새로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제도 운영 계획을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8. 25).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선발 제도 변화에 대한 운영계획을 통해 16개 시도별로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의 시범 적용 지역 및 대상을 발표하고 현재 관찰·추천을 담당할 영재교사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라 일부 시도 교육청들은 2010년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2011년부터 관찰·추천 시스템을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변화의 골자는 영재 선발 시험에 대비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고, 단순한 시험 점수보다는 잠재력 중심으로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영재선발제도는 지적 능력 중심의 시험을 통한 선발 체제로 학생의 진정한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부모의 관심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잠재적 영재아동이 선발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았다(박숙희, 2009; 조석희, 이미순, 황동주, 이현주, 2005).

교사의 관찰 추천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는 변화된 영재 선발제도는 현행 선발제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잠재적 영재의 폭넓은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방식의 지필평가를 통한 선발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이동혁, 2010; 진현정, 최호성, 2010; Kanevsky, 2000; Maker, Nielson, & Rogers, 1994; Sarouphim, 1999). 이는 교사들이 영재성을 보이는 행동특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를 추천한다면 영재 판별 과정에서의 오류 유형인 2종 오류 즉 영재가 아님에도 영재로 판별하거나, 또는 1종 오류 즉 영재인데 영재가 아닌 것으로 판별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의이기도 하다(박민정, 전동렬, 2008; 박춘성, 2006; 신보미, 2010; Kanevsky, 2000; Scott & Jillian, 2010; Siegle & Powel, 2004).

이러한 관찰·추천 방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들은 영재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 시스템이 영재선발에서의 고질적 문제인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잠재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숨어 있는 영재들을 보다 많이 발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교사

들은 물론이고 영재교사들조차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 시행에 있어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된 연수 및 판별담당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류지영, 2010).

이에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선발 시스템이 빨리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재판별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야하며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어떻게 판별 할 것인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류지영, 2010; 류지영, 정현철, 2010). 이 접근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판별과정 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이 판별과정을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인호, 한기순(2009)은 교사의 추천 유무에 따라 학생의 영재 관련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영재 선발 2단계(영재성 검사)와 3단계(학문적성 검사)를 통과한 학생과 탈락한 학생의 영재 관련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교사 추천은 영재 선발에서 70~80%의 판별 적중률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류지영, 정현철(2010)은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1단계는 다양한 정보 수집, 2단계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그 내용을 루브릭으로 평정, 3단계는 2단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과 면접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정의적 특성을 알아본 다음, 4단계인 영재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영재선발을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관찰-추천과 관련된 연구들은 효용성 분석과 거시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관찰-추천 영재판별방식이 ‘어떻게 운영되어야하는가?’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관찰-추천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제시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는 관찰-추천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담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관찰-추천 판별 시스템에 있어서 영재교사들의 인식과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이슈에 대한 명시적, 암묵적 현안을 알아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재담당 교사들은 관찰-추천 업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누구보다 관찰-추천 시스템의 강점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재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영재교사들의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수렴하여 정리하는 방식인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현장의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성을 보다 현장감 있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은 방향이나 방침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

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특정 사업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핵심적 인식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조적 개념화(structured conceptualization) 기법의 하나이다(Trochim, 1989).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은 최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도구로 양적·질적 연구법을 통합한 비교적 새로운 연구방법이다(Daughtry & Kunkel, 1993;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Paulson & Worth, 2002).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연구자들(김지영, 2007; 정찬석, 2005; 정찬석, 이은경, 김현주, 2004;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이 기초적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개념이나 대상을 연구하는 데 개념도 방식이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영재교육 영역에서는 개념도 연구법이 아직 거론되거나 연구에 적용된 바가 없다. 관찰-추천 시스템의 시작단계인 현 시점에서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 방식이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성 도출에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념도 연구법은 통계적으로는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에 기초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기초 자료 제시 및 결과물을 얻기 위한 자료조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구자의 관점을 최대한 배제해 준다는 것이 이 개념도 연구법의 특징이다. 아울러 특정 경험에 따른 연구 대상자들의 정신내적 인지 구조를 개념도라는 그림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결과물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개념도 방법은 연구의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요소,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영재판별에서 바람직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재판별에서 바람직한 관찰-추천 시스템에 대한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탐색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 담당교사가 지각하는 바람직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둘째, 바람직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에 대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이 지각하는 중요도는 어떠한가?

셋째,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이 지각하는 바람직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에 대한 실행정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첫째, 1차 조사(Brainstorming 조사)로 영재교육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영재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재담당 교사 12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 후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Johnsen, Biegel, 그리고 Shafran(2000)은 개념도 제작에 있어 참여집단이 보통 10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Kane과 Trochim(2006)도 유사하게 단일 개념도 제작에 있어 참여집단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10에서 20여명 정도의 참여집단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상기 주장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도 12명의 참여집단으로 개념도를 제작하였다. 12명의 연구 참여자는 남자 5명, 여자 7명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경력은 평균 8년이며, 평균 연령은 39세였다. 둘째, 이전 단계에서 분석된 진술문의 중요도와 수행수준 파악을 위한 2차 조사에서는 영재 담당 및 영재학급 담임과 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서울, 인천, 대전 교사 1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112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2차 조사에 포함된 교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교사 44명, 여교사 68명이었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절차상으로 개념도 연구법은 세 가지의 기본 과정을 거치는데 첫째, 특정 질문에 대한 응답이나 자기보고식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수집하는 과정, 둘째, 피험자들이 구조화된 카드분류작업을 통해 생각과 경험을 범주화하는 과정, 셋째, 다차원적도법과 군집분석을 통해 카드 분류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등이 그것이다(Trochim, 1993).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 방법은 실제적인 맥락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접근과 유사하나,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이 이들의 경험 내용과 잠재구조를 확인하는 연구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양적 연구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이 연구는 영재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지각하는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의 중요도와 개인별 실행수준을 알아보고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단계이다. 영재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지각하는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영재담당 교사 12명과 일정을 정하여 그룹으로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방법을 통해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만 있다면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념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Kane & Trochim, 2006). 본 연구에서 브레인스토밍 회기는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각 그룹에서 대략 1-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에 대해 가능한 많이 그리고 깊게

생각해 봅시다. 현장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교사로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의 요인으로 총 42개의 진술문 생성되었다.

둘째 단계는 아이디어 종합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면접 내용을 Giorgi(1985)의 질적 분석의 4단계를 바탕으로 핵심문장을 정리하였다. 최윤정, 김계현 (2007)과 최한나, 김창대 (2008)는 대략 50개 전후의 핵심문장들이 적당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핵심문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때 중복되는 아이디어는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의미가 모호하거나 너무 개인적인 시각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제외하였다. 생성된 진술문 내용을 명료화하여 진술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때 가능한 아이디어 원래의 뜻을 유지하도록 수정을 최소화 하였다. 이 단계에서 12명의 교사들은 작성한 진술문을 토대로 36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 분류 단계이다. 산출된 진술문을 우선화 하여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가까운 묶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카드에 기록하여 진술문 세트를 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문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한다. 모든 진술문은 둘 이상의 파일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각의 문항은 하나의 파일에만 분류 할 수 있다는 조건만을 제시하였다(Paulson, & Worth, 2002). 한 파일에 묶인 진술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각 파일에 가장 부합한 명칭을 쓰도록 하였다. 진술문 분류시간은 대략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도출된 진술문 분류 결과를 개념도 분석을 위한 다차원 척도의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이다. 개념도 분석을 위해서 SPSS 15.0 버전을 활용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통해 좌표위에 개별적인 진술문을 점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더 빈번하게 같은 것 끼리 묶은 진술문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Kane & Trochim, 2006). 다차원 척도법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는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36개의 진술문들을 분류한 결과이다. 어떤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지 두 개의 문장이 한 군집에 포함되었을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과하여 총 12개의 유사성 행렬(36×36)을 만든 후, 다시 역코딩 하여 비유사성 자료로 변환한 후 12명의 파일을 합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을 차례로 제작하였다. 결국 최종의 개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GSM이다(Bedi, 2006), 이 후에 개념도에 나타난 점들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나타난 x, y 좌표 값이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된다. 군집의 수는 덴드로그램으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할 때는 Ward의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Kane & Trochim, 2006) 그 이유는 이 방법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MDS에 의해서 점으로 표시된 핵심문장들 중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에 근거하여 문장(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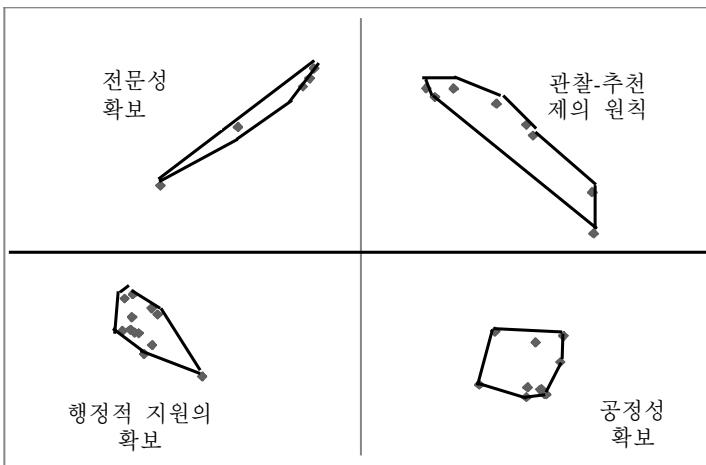
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진술문의 중요도와 개인의 실행수준 평가 단계이다. 설문지에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개인의 실행수준을 5점 척도로 표시하고, 추가로 응답자의 영재담당 교사의 경력과 성별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의 중요도와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실행수준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 방향 탐색을 위한 개념도 분석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인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토대로 진술문을 종합한 결과 36개의 진술문이 도출 되었으며 이들 36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은 .249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stress 값은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 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205~.365)를 충족시킨다(최한나 외, 2008; 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6).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에 위치한 개별 진술문들을 위계적 군집 분석을 통해 총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때 군집의 수는 분석결과 도출된 덴드로그램에서 1미만의 거리 값에서 군집의 수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여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결과 도출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분류 단계에서 기술한 범주 명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인식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인식에 대한 개념도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개념도는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인식을 설명하는 각 진술문들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함께 분류된 빈도를 반영하므로, 각 점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보다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념도 상에서 가까운 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의 좌표 값을 기초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인식은 4개의 범주로 이루어져있다. 각 범주명은 ‘전문성 확보’, ‘행정적 지원 확보’, ‘공정성 확보’, ‘관찰-추천제의 원칙’으로 명명되었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과 범주의 위치 및 거리 등을 분석한 결과,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크게 좌우로 ‘외적 지원 방향’, ‘내적 지원 방향’, 상하로 ‘단기적 방향’과 ‘중·장기적 방향’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념도 상에서 왼쪽에 위치한 범주들은 ‘전문성 확보’, ‘행정적 지원 확보’의 범주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범주들은 ‘관찰-추천제의 원칙’, ‘공정성 확보’의 범주이고, 위쪽으로는 ‘전문성 확보’, ‘관찰-추천제의 원칙’의 범주이고, 아래쪽에 위치한 범주들은 ‘행정적 지원 확보’, ‘공정성 확보’의 범주이다.

도출된 개념도를 살펴보면 ‘전문성 확보’, ‘관찰-추천제의 원칙’, ‘행정적 지원 확보’, 그리고 ‘공정성 확보’ 범주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지각된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적 지원 확보’와 ‘공정성 확보’ 범주에 각각 12개와 11개의 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상이한 고려사항들이 이들 범주에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찰-추천제의 원칙’ 범주와 ‘전문성 확보’ 범주에는 각각 8개와 5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연구에 참여한 영재교사들이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상당 부분 유사하고 모아진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인식의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정성 확보’ 범주에는 ‘관찰-추천 체크리스트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관찰-추천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틀, 구체적 사례, 샘플 답안 등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이상의(적어도 1-2개월 이상)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수업관찰이 동반 되어야한다’ 등으로 사회적, 학교차원의 교육제도적인 영재 판별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범주이다. 두 번째, ‘전문성 확보’ 범주에는 ‘교육청 내 전문가 집단이 학교마다 연수 및 지원 활동을 한다’, ‘영재 판별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추천위원회 구성에 영재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행정적 지원 확보’ 범주에는 ‘영재 판별 담당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청-대학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거점 학교(현 영재학급운영학교)에서 좀 더 많은 경계선 상의 영재 아동까지 교육을 해야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영재교육의 행정적 지원과 영재 담당 교사의 업무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범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관찰-추천제의 원칙’ 범주에는 ‘학생 모두가 관찰 대상이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선발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한 영재를 선발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가 판별되어야 한다(수학, 과학 영재 탈피)’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영재 판별을 위한 추천 대상이나 추천 원칙 등을 나타내는 범주라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범주별 진술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 방향 탐색인식의 범주별 중요도와 실행수준

범주 (문항수)	진술문	중요도 (평균)	실행수준 (평균)
공정성 확보 (11)	1. 담임교사의 추천뿐만 아니라 다수(2인 이상)의 인정이 필요하다.	4.54	1.35
	2. 관찰-추천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틀, 구체적 사례, 샘플 답안 등이 필요하다.	4.68	1.00
	4. 영재 담당교사는 의뢰 받은 아동에 대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4.56	1.23
	6. 단위 학교에서 영재 수업을 별도로 운영 하면서 영재 담당 교사가 관찰한다.	4.47	1.15
	9. 교사별 추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 하여 교사 '추천서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4.15	1.12
	10.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학부모, 학생에게 공개 하지 않는다.	4.43	1.07
	15. 기존 선발 방식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25	1.27
	18. 관찰-추천 체크리스트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4.86	1.45
	20. 영재 전문가에 의한 관찰 및 추천도 필요하다.	4.48	1.12
	30. 일정기간 이상의(적어도 1-2개월 이상)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수업관찰이 동반 되어야한다.	4.75	1.26
	35. 지능검사 및 각종 영재판별검사(창의성 검사 등)등을 전 학년에 걸쳐 시행한다.(중복되지 않게)	4.04	1.00
전문성 확보 (5)	3. 관찰-추천 영재 판별 방식을 일반교사,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4.52	2.21
	5. 모든 교사들에게 영재 선발 방식인 담임 관찰-추천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	4.28	1.23
	14. 교육청 내 전문가 집단이 학교마다 연수 및 지원 활동을 한다.	4.31	1.54
	17. 영재 판별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4.82	1.88
	29. 추천위원회 구성에 영재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4.59	1.00
행정적 지원 확보 (12)	7. 영재성 관련 학생 자료를 해마다 누가(나이스에 기록)하여 자료를 보관한다.	3.79	1.00
	8. 많은 영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4.30	1.71
	12. 영재 담당 교사가 학교마다 배치되어야 한다.	4.51	1.00
	13. 영재 담당 교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가중되어선 안 된다.	4.70	1.02
	16. 영재선발에 탈락한 아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3.99	1.00
	19. 영재 판별 담당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	4.70	1.69
	21. 단위 학교에서 영재 관련 업무분장 부서가 필요하다.	4.23	1.00
	23. 아동의 포트폴리오를 학년·학교 차원에서 모아 놓는다.	3.68	1.04
	24. 교사의 잡무가 줄어야 한다.	4.69	1.06
	25. 교육청-대학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4.34	2.06
	32. 2011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기보다 2-3년간은 시범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40	1.57
	34. 거점 학교(현 영재학급운영학교)에서 좀 더 많은 경계선 상의 영재 아동까지 교육을 해야 한다.	3.88	1.00

	11. 추천 시 정의적 영역(과제집착력 등) 의 비중을 높인다.	4.18	1.18
	22. 학생 모두가 관찰 대상이어야 한다.	4.00	1.08
	26. 학업 성적 우수어나 교사 친화적인 학생보다는 영재성 있는 학생이 추천되어야 한다.	4.57	1.01
관찰- 추천제의 원칙 (8)	27. 잠재적 영재, 미성취영재까지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63	1.00
	28. 일선 학교에서 선발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영재를 선발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4.74	1.67
	31. 관찰-추천 시스템은 소외된 영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기존 영재선발 시스템의 전면적 대체가 아닌 보완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4.05	1.00
	33. 다양한 영역의 영재가 판별되어야 한다.(수학, 과학 영재 탈피)	4.60	1.01
	36. 영재교육기관 수료경력이 상위학교(특목고) 입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8	1.82
	전 체		4.42

2.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중요도와 실행수준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영재 판별에서 관찰-추천시스템의 방향 탐색의 중요도와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실행수준을 평가하였다(<표 1> 참조).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각 요인의 중요도는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에서 평균 3.79에서 4.86까지 분포하였고,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42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성 확보 영역에서는 ‘관찰-추천 체크리스트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M=4.86$)’를 제일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다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적어도 1~2개월 이상)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수업관찰이 동반 되어야한다($M=4.75$)’ 문항이 중요도에서 그 뒤를 이었다. 전문성 확보 영역에서는 ‘영재 판별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M=4.82$)’, ‘추천위원회 구성에 영재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M=4.59$)’ 등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행정적 지원 확보 영역에서는 ‘영재 담당 교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가중 되어선 안 된다($M=4.70$)’, ‘영재 판별 담당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M=4.70$)’, ‘교사의 잡무가 줄어야 한다($M=4.69$)’ 등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영재성 관련 학생 자료를 해마다 누가(나이스에 기록)하여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M=3.79$)’, ‘아동의 포트폴리오를 학년·학교 차원에서 모아 놓는다($M=3.68$)’, ‘거점 학교(현 영재학급운영 학교)에서 좀 더 많은 경계선 상의 영재 아동까지 교육을 해야 한다($M=3.88$)’, ‘영재선발에 탈락한 아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M=3.99$)’ 등의 문항은 평균이 4.0 밑으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관찰-추천제의 원칙 영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선발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영재를 선발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M=4.74$)’, ‘잠재적 영재, 미성취영재까지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M=4.63$)’ 등의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영재 판별에서 관찰-추천시스템의 방향 탐색에 대한 본인의 실행수준평가는 1.00에서 2.06까지로 분포하였고 전체 평균은 1.31로 중요도에 비해 실행수준이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 ‘영재선발에 탈락한 아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추천위원회 구성에 영재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관찰-추천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틀, 구체적 사례, 샘플 답안 등이 필요하다’ 등이 가장 낮은 실행수준($M=1.00$)을 보였으며, ‘관찰-추천 영재 판별 방식을 일반교사,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행수준($M=2.21$)으로 나타났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영재 판별에서 관찰-추천시스템의 방향 탐색의 중요도는 ‘전문성 확보’가 가장 높았으며($M=4.50$), ‘행정적 지원 확보’가 네 범주 중 가장 낮았다($M=4.26$). 실행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성 확보’ 범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M=1.57$), 이는 2010년부터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 시행을 위한 판별연수가 시행중인 까닭에 전문성 확보 범주가 비교적 높은 실행 수준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성 확보’ 범주는 가장 낮은 실행수준을 나타냈는데($M=1.18$), 이는 공정성 확보 문제가 관찰-추천 시스템의 수행과 정착에 있어 가장 어렵고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3.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 방향 탐색의 중요도와 실행수준 평가 간 차이

브레인스토밍 집단에서 도출된 36개의 영재 판별에서 관찰-추천시스템의 방향 탐색에 대한 진술문의 중요도 인식과 실제 실행수준 간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중요도와 실행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이슈의 방향설정과 개선을 위해 보다 필요한 영역이나 항목이 무엇인가를 파악함에 있어 준거 틀을 제공해 준다.

분석 결과, 전체 범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비해 영재 판별에서 관찰-추천시스템의 방향 탐색의 실행수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중 ‘공정성 확보’가 가장 큰 평균의 차이를 보였으며 ‘전문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 모든 범주와 항목에 걸쳐 실행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찰-추천 시스템을 위한 시급한 준비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범주별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 탐색인식의 중요도와 실행수준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평가 간의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공정성 확보	중요도	4.47	.26	3.29	122.149***
	실행수준	1.18	.14		
전문성 확보	중요도	4.50	.26	2.93	82.785***
	실행수준	1.57	.26		
행정적 지원 확보	중요도	4.26	.27	3.00	106.99***
	실행수준	1.26	.12		
관찰-추천제의 원칙	중요도	4.41	.29	3.19	116.23***
	실행수준	1.22	.12		
전 체	중요도	4.42	.02	3.11	146.21***
	실행수준	1.31	.09		

*** $p < .001$

VI. 논의 및 제언

개념도 연구법은 방향이나 방침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특정 사업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핵심적 인식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소개된 적이 없다. 이 연구는 개념도 연구법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근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영재들을 지도하고 있는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중요도 그리고 실행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영재 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인식 구조는 크게 좌우로 ‘외적 지원 방향’과 ‘내적 지원 방향’, 상하로 ‘단기적 방향’과 ‘중·장기적 방향’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지원 방향’은 교사 관찰-추천 시스템의 외적인 지원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행정적 지원을 말하고, ‘내적 지원 방향’은 교사가 실제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 꼭 필요한 공정성 확보나 누구를 추천 대상으로 해야 하는 지를 나타낸다. ‘단기적 방향’에서는 곧 시행될 관찰-추천 시스템에서 판별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추천 대상을 나타내고, ‘중·장기적 방향’은 관찰-추천 시스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사, 아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향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시스템의 방향 탐색의 중요도는 ‘전문성 확보’, ‘공정성 확보’, ‘관찰-추천제의 원칙’, ‘행정적 지원 확보’의 순으로 높았다. 영재판별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찰-추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에 추천대상과 행정적 지원 확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또한 모든 범주에 걸쳐 관찰-추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현재 실행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관찰-추천 시스템을 위한 제반준비가 매우 부족하여 현장에서 영재를 관찰-추천해야 할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류지영, 정현철 (2010), 이인호, 한기순(2009), 최호성(2010) 등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관찰-추천을 위한 공정하고 타당한 관련도구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 필요한 도구들을 보다 정교화 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영재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찰-추천 영재 선발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부모 관찰기록지 같은 비공식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객관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관찰-추천 시스템이 관찰이 배제된 추천 등의 형태로 오용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잠재적 영재발굴을 위해 체계적인 관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실에서 관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정한 도구의 개발과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찰과 추

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해 영재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영재의 이해와 선발, 창의성 등에 대한 영재교육 소양연수를 실시하는 여부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최호성, 2010). 실제로 영재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와 영재성에 대한 연수는 매우 중요하다. 일차적인 관찰과 추천이 영재와 영재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영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학업 우수자들이 판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관찰-추천 시스템을 적용하는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영리한 학생들보다는 성실한 학생과 조용하고 말 잘 듣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반면, 매우 창의적인 영재학생들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예사롭지 못한 질문들과 대답들로 교사를 궁지에 몰아가는 학생들을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Prieto, Parra, Ferrandiw, & Sanchez, 2004). 또한 교사들은 매우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이 보이는 독창성과 호기심에는 그다지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영재학생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경우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태도를 지닌 영재학생들은 추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든 교사들에게 영재와 영재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 판별교사 연수 및 양성 프로그램이 판별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얼마나 신뢰롭고 타당한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탐색 역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관찰 추천 시스템의 정착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사의 잠무경감,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의 확충 역시 중요하다. 특히 관찰-추천 시스템의 가장 큰 우려 점 중의 하나인 학부모들의 민원과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에 대한 학부모 홍보나 교육 등 구체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관찰-추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개념도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적으로 밝히긴 했으나 이 연구 결과가 일반화되어 적용될 만큼 객관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어지는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부가적으로 보충해야할 부분이다.

이 연구는 앞으로 본격화될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현재는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교사들을 통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가 향후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 전략을 탐색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김지영 (2007). 네트워크 성과측정 기획을 위한 개념도 연구법 적용가능성. **한국사회복지학**, 59(3), 281-304.

- 류지영 (2010). 관찰·추천을 통한 영재판별에 대한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159-178.
- 류지영, 정형철 (2010).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연구. **영재교육연구**, 20(1), 259-289.
- 박민정, 전동렬 (2008). 과학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법으로써 교사 추천제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8(2), 111-119.
- 박숙희 (2009). 소외계층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교육**, 8(3), 5-21.
- 신보미 (2010). 수학 영재 관찰·추천 도구의 개발과 모의 적용 사례 연구. **영재교육연구**, 20(1), 31-59.
- 이동혁 (2010). 한국어판 Gifted Rating Scale의 구인타당도. **영재교육연구**, 20(2), 595-619.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인호, 한기순 (200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의 효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19(2), 381-404.
- 정찬석 (2005).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 측면 탐색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찬석, 이은경, 김현주 (2004).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의 도움경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21-35.
- 조석희, 이미순, 황동주, 이현주 (2005). **소외계층 영재의 발굴 및 교육방안: 소외계층영재의 가정 및 개인특성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CR 2005-64.
-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진현정, 최호성 (2010). 한국어판 영재아 행동특성 평정척도(K-SRBCSS)의 개발과 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0(2), 621-647.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관계 역량. **상담학연구**, 9(1), 181-197.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최호성 (2010). **영재 판별 교사의 자질과 역할.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 영재교육 판별교사 직무연수** (pp. 115-133). 인천: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
-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35.
- Daughtry, D., & Kunkel, M. A. (1993). Experience of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 concept ma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40, 316-323.
- Giorgi, A. (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 (Ed), *Phenomenologic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pp. 12-28). Pittsburg,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Goodyear, R. K., Tracey, T. 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i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67-75.
- Kane, M., & Trochim, W. K.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 Kanevsky, L. (2000). Dynamic assessment of gifted students. In K. Heller., F. Monks., R. Sternberg, & R. Subotnik (Eds.), *Intelligence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pp. 283-296). New York: Elsever.
- Maker, C. J., Nielson, A. B., & Rogers, J. A. (1994). Giftedness, diversity, and problemsolving: Multiple intelligences and diversity in educational setting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27*, 4-19.
- Sarouphim, K. M. (1999). Discover: A promising alternative assess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minorities. *Gifted Child Quarterly, 43*(4), 244-251.
- Scott, J. P., & Jillian, C. G. (2010). The teacher observation form: Revisions and updates. *Gifted Child Quarterly, 54*(3), 179-188.
- Siegle, D., & Powel, T. (2004). Exploring teacher biases when nominating students for gifted programs. *Gifted Child Quarterly, 48*(1), 21-29.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Trochim, W. M. K. (1993). *The concept system*. Ithaca, New York: Author.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46*, 317-324.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86-93.
- Prieto, L., Parra, J., Ferrándiz, C., & Sanchez, C. (2004). *The role of the teacher within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Leeds, UK: University of Leeds.

= Abstract =

Exploring the Class Observation and Nomination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Us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Jeong-Yong Lee

University of In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the observation and nomination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ifted and to find out the importance and practice level perceived by the gifted education teachers using the concept mapping approach. For this, twelve gifted education teachers brainstormed and gathered ideas for the ideal ways of observation and nomination system and the gathered statements were solicited.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also used. In addition, 112 gifted education teachers rated the importance of and the practice level for the suggested ideas of observation and nomination system.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36 statements were solicited and as a result of concept mapping the suggested observation and nomination system were categorized as 'attainment of professionalism', 'attainment of administrative support', 'attainment of fairness', and 'considering points for recommendation.'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ived importance levels and the practice level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Concept mapping, Identification, Observation-recommendation, Gifted education teacher

1차 원고접수: 2011년 2월 8일
수정원고접수: 2011년 3월 18일
최종게재결정: 2011년 3월 22일